

[GNH000] 전세계 청년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미국 횡단 여행

## 세부 일정 및 여행 규정

\* 아래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 Day 1 로스엔젤레스-라스베가스

다른 여행자들과의 처음으로 만나는 날입니다. 함께 모하비 사막을 건너 365일 휘황찬란한 빛으로 넘쳐나는 라스베가스로 향합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들을 돌아 다니고 프리몬트 거리의 최첨단 레이저 쇼를 관람 할 때는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만들어질 것 입니다.

(호텔숙박/석식포함)

### Day 2 라스베가스

라스베가스의 휘황찬란한 거리를 걸으며 나만의 라스베가스를 찾는 시간입니다. 풀장에서 휴식을 즐기거나, 여기저기서 플래시 터지는 화끈한 파티 현장에 참여하는 등 라스베가스 특유의 화려함을 직접 느껴 보세요. 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3 라스베가스-그랜드캐니언

미국에서도 유명한 66번 고속도로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합니다. 그랜드 캐니언을 향하는 동안 숨막히는 장관을 볼 수 있어요.

(호텔숙박/석식포함)

### Day 4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

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가진 그랜드캐니언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. 하이킹이나 간단한 산책도 괜찮고, 선택관광(추가비용)으로 헬기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활동을 하든지, 숨 막히는 그랜드 캐니언의 위대함이 가슴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.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5 그랜드 캐니언-모뉴먼트 벨리-듀랑고

모뉴먼트 벨리는 서부 황무지의 매력적인 풍경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입니다. 특별히 벨리에서는 현지가이드와 함께 나바호 족 공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좁은 협곡을 따라 오색 사막(Painted Desert)에 다다르면 붉은색, 푸른색, 흰색 등 지층들이 만든 장엄한 경관에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.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6 듀랑고-앨버커키

오전에는 스틸있는 강에서 래프팅에 참여할 수 있고, 한가롭게 말을 타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. (선택관광, 추가비용) 뉴멕시코에 들어서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. 앨버커키에 도착하면, 저녁 식사 전 도시 곳곳에 있는 스페인 유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. 구시가지인 푸에블로에서는 원형 모습의 마을이 그대로 있고, 작은 상점에서 독특한 장식용품과 기념품을 구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.

- 록키산맥 드라이브

- 앨버커키 구시가지 방문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7 앨버커키-아마릴로

이 지역은 열기구로 유명합니다. 원할 경우, 아침에 열기구를 타고 뉴멕시코를 바라 볼 수 있습니다.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막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세요. 산타페는 멕시코,스페인,앵글로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의 문화가 뒤섞인 곳입니다.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 수공예품인 터키석을 사기에 좋습니다. 점심에는 caldillo, fajits, tamales 등 현지식을 맛 볼 수 있습니다. 이후 우리는 목장과 소경매로 유명한 카우보이의 나라 아마릴로를 여행합니다. 그리고 도로 옆에 놓인 시대별 캐딜락 전시를 보며 클래식한 미국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이날 저녁은 old west 스타일 숙박시설에서 하루를 머뭅니다. (호텔숙박/석식포함)

- 미국원주민문화 체험

- 캐딜락 랜치 방문

- Big Texan culture & food 체험

### Day 8 아마릴로-댈러스

<댈러스 카우보이> 풋볼 팀의 고장이자, 오일 백만장자, 부유한 목장주 들로 유명한 댈러스에 갑니다. 여행 매니저와 함께 댈러스 시내로 나가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습니다. 텍사스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댈러스의 매력을 맘껏 즐겨 보세요.

(호텔숙박/조식,석식포함)

### Day 9 댈러스

아침에는 식스 플로어 박물관에 들러 댈러스의 암흑기 중 한 시기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존 케네디의 일생과 암살 사건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. 자유시간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도시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.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댈러스 엘리트샵(Dallas elite shop)에 들를 수도 있고, 딥 엘럼(Deep Ellum)으로 가면 핑키스타일의 옷을 파는 상점, 유명한 갤러리 그리고 많은 레스토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자유일정이 끝나면 다 함께 포트워스에 들러 오래된 가축수용소를 방문하여 카우보이 부츠를 사거나 동물 뼈로 만든 장식품 등을 볼 수 있습니다.

- 존 에프 케네디의 생애가 전시된 식스 플로어 박물관 방문

- 포트웍스 스톡야즈(Fort Worth Stockyards) 방문

- 로데오 타운의 소와 카우보이 만나기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10 댈러스- 리틀락- 멤피스

멤피스에 가는 길에 블루스, 락앤롤, 소울 뮤직의 본고장인 리틀 락에 들립니다. 미국 최대의 강인 미시시피강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11 멤피스

멤피스는 블루스가 발생한 곳으로 엘비스 프레슬리, 릴리 B. 킹 등 유명한 음악가의 탄생지입니다. 빌 스트리트(Beale Street),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과 묘가 있는 그레이스랜드 등 유명한 음악의 성지에서 본고장의 락과 블루스를 즐겨보세요.

- 그레이스 랜드 방문

- 시빌 라이트 뮤지엄(the Civil Rights Museum) 방문

- 블루스 음악의 고장 빌 스트리트 방문

(호텔숙박/조식,석식포함)

### Day 12 멤피스-뉴올리언스

프랑스 식민 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뉴올리언스로 향합니다. 뉴올리언스는 재즈음악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. 도시 자체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리듬감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가버리고 말 거예요.

- 프렌치 쿼터(the French Quarter), 잭슨 스퀘어(Jackson Square), 프렌치 마켓(the French Market) 방문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13 뉴올리언스

프렌치 쿼터, 크레올식 요리, 부두교의 주문의식 등에 녹아 있는 뉴올리언스의 영혼이 담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. 자유 시간에 나만의 뉴올리언스 여행을 즐겨보세요. Café du Monde 에서 밀크 커피와 프렌치 도넛은 프랑스 식민 시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광장에서 진행되는 벵골시장과 파머스 마켓은 뉴올리언스 현지인의 소박함이 느껴집니다. 현지 음식을 더 경험하고 싶다면, 선택관광(추가비용)으로 뉴올리언즈 쿠킹클래스에 참여 가능 합니다.

- Mardi Gras World Mask making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14 뉴올리언스- 파나마 시티 비치

남쪽 미시시피를 여행 후, 알라바마로 향합니다.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파나마 시티 비치에 도착합니다.

(호텔숙박/조식,석식포함)

### Day 15 파나마 시티 비치- 올랜도

평범한 농업 도시였던 올랜도는 월트디즈니 덕분에 연간 4,000여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. 박물관, 디즈니 월드, 유니버설 스튜디오, 디즈니 시월드 등 다양한 볼거리, 즐길거리가 있으니 다음날 일정을 대비해 이 날은 올랜도에서 평안한 밤을 지내세요.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16 올랜도

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이동 후 구시가지 엔터테인먼트 지역을 방문합니다. 올랜도의 수많은 테마파크를 돌아 다니려면 시간이 모자랄지도 몰라요. 하나라도 놓치기 싫다면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하게 이동해야 합니다. (호텔숙박/조식포함)

-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이동 - 올드타운 엔터테인먼트 지역 방문
- 놀이동산 가는 편도 교통편
-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 및 관광은 선택사항 (추가비용 발생)

### Day 17 올랜도- 마이애미

플로리다 반도의 유명한 항구도시 마이애미는 아름다운 해안이 있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화려한 볼거리, 즐길거리가 다양합니다. 시내에서 마이애미 히트 아레나를 볼 수 있고, 상업지구와 여러 쇼핑몰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우스 비치에 있는 마이애미의 상징적인 건물 앞에서 기억에 남을 사진도 찍어 보세요.

- 마이애미 시내 구경
- (호텔숙박/조식, 석식포함)

### Day 18 마이애미

라스베가스와는 또 다른 화려함을 지닌 마이애미! 쇼핑, 나이트 라이프, 휴양, 무엇보다 빠지는 게 없는 도시죠.

유명한 미국 드라마 <CSI 마이애미> 시리즈에 버금가는 스펙타클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!! 이 날은 다양한 마이애미의 건축물들을 둘러 본 후 도시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여합니다.

(호텔숙박)

### Day 19 마이애미 – 데이тона 비치

모래, 바다 그리고 햇빛이 어우러진 비치에서 잠시 쉬어 보세요. (호텔숙박/석식포함)

\*2019년 4월부터 코코아 비치로 변경 예정

### Day 20 데이тона 비치\* – 케네디 항공 우주 센터 – 세인트 오거스틴

케네디 항공 우주 센터에 들러 견학을 합니다. 그 후에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진 세인트 오거스틴으로 향합니다. (호텔숙박/조식포함)

\*2019년 4월부터 코코아 비치로 변경 예정

### Day 21 세인트 오거스틴 – 사바나

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자갈돌 길을 주변을 관광한 후, 저녁 전에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사바나에 도착합니다.

-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배경이 되어 유명해진 homes & gardens 방문
- 가이드와 함께하는 사바나투어
- 강가에서 즐기는 나이트 라이프

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22 사바나 - 롤리 (찰스턴 경유)

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 롤리로 향하는 길에 찰스턴에 방문합니다. 손님 대접이 극진한 찰스턴에서 친절한 남부의 여유로운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후, 롤리의 대학타운에 도착합니다. (호텔숙박/조식, 석식 포함)

### Day 23 롤리 - 워싱턴 D.C

수도인 워싱턴에서는 이틀동안 바쁘게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. 세계의 수도인 이 도시에서 해야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. 유명한 기념물과 기념비 뿐 아니라 박물관, 백악관 등 수많은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(호텔숙박/조식,석식포함)

- historic Richmond, VA 방문
- Evening Illuminations 투어
- the Lincoln, Jefferson, Vietnam, FDR & Korean memorials 관람
- the White House, Capitol Building & Washington Monument 관람

### Day 24 워싱턴D.C

어제 못다한 일정을 오늘 끝내세요. 전일정 자유시간입니다. 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25 워싱턴D.C

어제 못다한 일정을 오늘 끝내세요. 전일정 자유시간입니다. (호텔숙박/조식포함)

### Day 26 워싱턴D.C - 뉴욕

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뉴욕으로 이동한 후 여정을 끝마칩니다. (조식포함)

### 선택 관광 (추가 옵션)

- \* 선택 관광은 여행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. 강제 활동이 아니며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.
- \* 아래 내용 및 금액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참가확정 후 안내 드립니다.
- \* 선택 관광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. 여행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현지에서 지불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.

활동명	상세 설명	금액
그랜드 캐년 헬리콥터	헬리콥터를 타고 믿지 못할 그랜드 캐니언의 위대한 장관을 조망합니다. 5인승 헬리콥터를 타고 약 30분간 그랜드 캐니언의 상공을 누비게 됩니다.	199USD
뉴올리언스에서 미국 남부 요리 강습	미국 남부의 가정식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. 유명한 현지 요리사와 함께 능숙한 솜씨로 케이준, 크레올 등을 만들고 음식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.	27USD
라스베가스 태양의 서커스	라스베가스에서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태양의 서커스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블록버스터급 무대와 진기한 배우들의 곡예.	85USD
앨버커키 열기구	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열기구 대회가 열리는 알버커키에서 열기구를 탑승해 보세요. 독특한 경관의 리오 그란데 강을 내려가보며 평화롭게 하늘을 나르아 보세요.	163USD
듀랑고 스노우모바일링	동화 속 배경각튼 콜로라도의 겨울을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.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. 100km에 이르는 산주안 산의 트레킹 코스와 파우더 같은 눈길을 누벼 보세요.	97USD (single) 137USD (Double)

## 여행 약관

예약자는 약관을 숙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 본 프로젝트는 한국갭이어 및 해외 운영기관의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.

## 예약의 확정

- 예약 진행을 위하여 예약금 50만원을 입금해 주셔야 하며, 출발일 45일 이내 예약 시 프로젝트비를 100% 완납하셔야 합니다.

## 프로젝트 비용

- 예약금을 제외한 프로젝트비 잔금은 참가확정 2주 이내에 완납하셔야 합니다.
- 프로젝트 참가 시작일 45일 이내에 예약을 희망하는 경우 프로젝트비 100%를 완납하셔야 합니다.

## 예약의 변경

- 프로젝트 확정 후 출발 날짜/상품 등 변경 시 10만원의 변경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- 출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예약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변경 요청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변경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.
- 변경 수수료는 예약시점까지의 좌석 확보, 일정/견적 작성 등 서비스 차지 및 업무 진행을 위한 비용입니다.
- 추가 숙박 등 프로젝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출발 45일~22일 전 변경 시 총 여행 금액의 25% 변경 수수료
- 출발 21일~8일 전 변경 시 총 여행 금액의 30% 변경 수수료
- 출발 7일~ 1일 전 변경 시 총 여행 금액의 50% 변경 수수료
- 출발 당일 변경 불가

## 예약의 취소

이 프로젝트는 <엄격> 환불 정책이 적용되며, 프로젝트 참가 확정 이후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환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갭이어 환불 규정](#)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이 프로젝트의 예약금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므로 예약금 입금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하며 현지기관에서 불허 시 해당 예약금은 환불됩니다.

## 가격 보장

- 환율 변동, 현지기관 프로젝트비 상승 등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가격 보장은 유류할증료 및 세금 등 사항에서는 배제되며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은 불가합니다.
- 수수료 책정은 본래의 프로젝트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예를들어 특별 할인이 적용되어 참가비를 지불하였을 경우라도 취소 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할인 전 프로젝트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.